

본당 소식

♣ Buon Natale~!!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와 새로움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탄 선물 드립니다.

- 올해 성탄 선물로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레오 14세 교황의 생각」이란 책을 나눠드립니다.

♣ 미사 시간 안내

- 12월 25일 성탄 낮 미사 : 11시
- 12월 31일 송년 미사 : 19시

♣ Natale 행사 시간 안내

- 17시 미사 / 19시 식사 / 20~22시 행사 / 22시 30분 정리 및 귀가

♣ 2026년 달력 나눠드립니다.

-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주문한 내년도 달력을 31일 **송년미사** 때 나눠드립니다 (각 가정당 1부)

전례 성가

- 입당 : X
 봉헌 : 102 (어서 가 경배하세)
 107 (천사의 찬송)
 성체 : 105 (사랑의 아기 예수)
 106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
 파견 :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79.78€ • 교무금 200.00

전례 봉사

이번 미사(12월 24일)	다음 미사(12월 25일)
1독서 : 이정혁 루카	1독서 : 안효빈 요셉
2독서 : 이나영 로마	2독서 : 안소현 아네스
복 사: 정명용 미카엘 / 강한 프란체스코 정상현 안토니오/이초노부야 가티안	복 사: 강윤이 스텔라 / 문수빈 미카엘라 안태오 마태오 / 안테리 소화데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옥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2월 24일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밤 미사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1독서 (이사야서 9,1-6)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이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어를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4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2,11-14)

사랑하는 그대여,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13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음 (루카 2,1-14)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성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를 비추시어,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이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그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3.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다양한 이유로 삶의 자리를 떠나 온 이들을 살피 주시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사회가 그들을 환대하고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살피시어, 모든 이가 성탄의 참뜻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